

# 행복한 충남, 문화융성을 위한 지역문화전략의 방향

전성환 | 충남문화산업진흥원 원장

## 들어가며

누구나 지금의 세계와 한국상황을 위기적 상황이자 전환의 시대로 진단한다. 독신 가정의 증가, 장기화된 경기 침체, 대규모 청년 실직,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인간 관계가 약해져 가는 사회를 지칭하는 “무연(無緣)사회”<sup>1)</sup>, ‘스마트폰에 집착하면서 세상과 관계를 맺는게 아니라 사이버네트워크에 집착하는 사회를 일컫는 “자폐사회” 등 사회적 병리현상을 진단하고 있다. 한국사회의 대표적 병리현상을 나타내는 지표인 이혼율(인구천명당)은 70년대 0.4명에서 2012년 2.4명으로 OECD국가중 7위, 자살율(인구 10만명당)은 85년 9.3명에서 2011년 31.7명으로 OECD국가중 1위, 국민행복지수(갤럽조사)는 2012년 기준 148개국중에서 97위, 사회갈등지수는 OECD국가중 4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 와중에 정부시스템, 정당이나 학교 등 기존의 질서와 제도를 유지하는데 큰 기여를 했던 기제들이 사회를 유지하는데 잘 들어맞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과거의 해법은 잘 작동하지 않는데 새로운 해법은 찾기 어려운 것이 우리 사회 위기의 현 모습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통합과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슬로건하에 박근혜 대통령은 새 정부 4대 국정지표(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기반구축)의 하나로 ‘문화융성’을 제시하였고, 문화융성 국정지표의 기획 및 실행을 위해 대통령 소속 정책자문위원회인 ‘문화융성위원회’가 지난 7월 25일 공식 출범하게 되면서 국정지표 수행의 골격을 갖추었다.

## 문화융성은 문화적 가치가 모든 부문에서 기본원리로 작동되는 사회

‘문화융성’은 ‘창조경제와 함께 어느새 전국 방방곡곡의 정책현장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단어가 되었다. ‘문화융성’의 개념은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장관이 어느 토론회에서 ‘문화적 가치가 모든 부문

1) 2010년 일본 NHK방송 특집에서 언급된 용어로 알려져 있다.

에서 기본 작동원리가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문화 융성이다 이라고 밝힌 표현에 잘 나타나있는 바와 같이 ‘복지’ 화두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대적 방향이 된 것처럼 ‘문화’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대적 화두로 등장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IMF체제와 함께 출범한 국민의 정부시절, 경제위기로 인한 사회안전망의 확대필요성에 의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의 제정으로 본격화된 복지정책은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이념논쟁으로 흘렀고, 복지가 사회불평등해소, 소득재분배효과, 국민행복추구권이라는 본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라는 개념보다는 경제회복과 활성화에 기여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경제 우위의 관점에서 복지를 다루어온 반면,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지표의 하나로 내건 ‘문화융성’은 ‘문화’ 본래의 가치와 함께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이자 새로운 경제부흥의 전인차로서 ‘문화’를 얘기하면서 시대적 화두로 등장한 것이 ‘복지’와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관점을 뒷받침해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여러 사례들을 찾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싸이’로 대별되는 한류의 글로벌화일 것이다. 작년에 프랑스 파리대학교 정치학연구소 교수와 외무장관을 역임한 기 소르망이 한국에서의 한 강연에서 ‘상품과 문화를 동시에 수출해본 나라는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뿐’이라고 하면서 한국문명의 글로벌 문화브랜드를 적극 알려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다. 그의 말대로 지난해 영화·음악 등을 포함하는 개인·문화·오락 서비스 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8550만달러 흑자를 냈다고 한다. 관광객은 1,100만명을 돌파했다. 국력 신장에 싸이의 ‘강남스타일’로 상징되는 한류가 가세한 결과다. 1999년 시작된 한류는 mbc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를 시작으로 ‘대장금’, ‘겨울연가’로 일본 및 동남아시아로 뻗어나갔고, 거기에 가세해 아이돌 스타가수들의 K-POP이 동남아를 넘어 미국, 유럽까지 진출해 한류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보고서 “한류수출 파급효과 분석 및 금융지원방안”(2012)에 따르면 문화상품 수출이 100달러 증가하면 휴대전화, 가전제품, 식음료 등의 수출이 평균 412달러 늘어난다는 조사 결과도 있어 한류를 비롯한 문화콘텐츠가 다른 산업과 결합하면 새로운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방증을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면 명동에 있던 다양한 상품군의 상점가들이 사라지고, 수많은 국내화장품 체인점 홍보경연장으로 거리경관을 바꾼 것은 한류스타들에 힘입은 바가 크다. 화장품 회사들의 제품의 질 향상노력은 별개로 하더라도 화장품 회사 스스로 해외마케팅과 홍보에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엄청난 경쟁력을 갖추게 된 것은 한류의 간접적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흥미로운 논거를 제시하는 사례는 심리학자인 광금주 서울대 교수가 한 신문사의 기고에서 문화와 경제와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인간 뇌는 익숙한 것보다 새롭고 희소한 자극에 의해 활성화된다. 최신 문화예술 트렌드는 가장 새롭고 좋은 것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뉴런을 만족시킨다”, “경제가 어렵고 일상에서 스트레스가 커질수록 더욱 만족스럽고, 즐거운 자극으로 뇌를 활성화시키고 싶은 욕구가 강해진다.... 경

제불황시기에도 창조능력에 기반한 문화예술산업이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여기에 있다”

〈유엔창조경제보고서(2010)〉에 의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무역이 12%이상 줄어들었지만 그림, 공예, 책, 공연예술, 디자인 등 창조산업분야는 활발하게 성장해서 매년 평균 5.5% 이상 성장하였고, 전 세계적으로 2조 2000억달러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플라이스위터하우스쿠퍼스(PWC)’의 발표에 의하면 2012년 ‘엔터테인먼트 & 미디어’ 세계시장규모가 1조 6385억불(전년대비 5.1%성장)로 향후 5년간 5.6%의 고성장을 예측하고 있다. 한국은 세계 7위규모(세계시장점유율 2.7%)이며 2012년 콘텐츠수출액은 48억불로 전년대비 19.7% 증가하였다고 한다.<sup>3)</sup>

이제 한국사회도 끝모를 저성장체계에 돌입한 듯하고,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제조업 중심의 수출중심 경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류의 힘에서 보듯 문화예술산업은 그 자체로서뿐 아니라 여타 산업의 지렛대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문화와 실물산업과의 결합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과제지표로 ‘문화융성’을 내건 것은 옳은 방향이라 하겠다.

## 국민통합과 창조경제를 이끄는 견인차, 문화융성

새 정부가 제시하는 ‘문화융성’의 방향은 대략 요약하면 이렇다.

첫째, 사회통합과 갈등 치유, 소통을 위한 문화의 역할과 가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늘려 지역과 세대와 계층 간의 문화 격차를 없애기 위해 문화예술 창작기반을 마련하고, 문화복지 등 소외계층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 어르신 문화활동지원, 문화바우처 발행,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데 집중투자하겠다는 것

둘째, 창작뮤지컬, 공연예술 등 창작지원과 공연예술활용 관광사업화 등 창의적 콘텐츠 발굴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문화와 첨단기술이 융합된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창조경제를 견인하고 새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를 위해 문화 기본권의 보장과 문화진흥을 위해 〈문화기본법〉을 제정하고 2017년까지 문화 재정지출을 2%로 확대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 ‘문화융성’ 과제의 핵심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난 5월 대통령 업무보고자료에서 밝힌 5년 후 달라지는 [주요문화지표]는 실로 야심차다.

3) 세계반도체무역통계기구(WSTS)는 올해 반도체시장규모를 작년보다 3.2% 축소된 2,899억달러로 전망했다. 2013년 세계가전시장 규모는 2,500 억달러 정도로 예상한다.(삼성측 발표)

### 3. 행복한 충남, 문화융성을 위한 지역문화전략의 방향



하지만 중앙정부차원의 문화융성에 대한 목표지표들이 지역문화의 수준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충남도민들에게 체감되어지는 것은 여전히 별개의 문제다.

문화콘텐츠산업의 주류분야인 방송, 애니메이션, 게임, 영화, 음악산업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상황이고, 한류는 여전히 TV속 연예가소식에서 들을 수 있는 먼 곳의 얘기일 뿐이다.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첨단 문화기술과 장비와 연출력, 인기배우들로 호평받는 수준 높은 뮤지컬을 보는 것은 몇몇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공연 가능한 시설을 갖춘 공연장이 없어 불가능하거나 시장성이 없어 아예 불가능하고, 지역 장소마케팅으로서의 의미는 가질지 모르나 지역문화 역량을 높이는 데는 거의 기여가 없는 지역축제들에 B급 대중가수들을 보는 것에 만족해한다.

그나마 중소도시규모에 하나씩 있는

영화관을 즐겨찾는게 일반 지역민들의 평균적 문화생활인 것인 만큼 작년 누적관객 1억명을 돌파하고 올해는 2억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청계천 개장 첫해에 1억명이 찾아왔다고 호들갑을 떨었던 서울시 홍보가 서울에 직장인들과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찾을 수 있는 광장과 공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설인 것처럼, 한국영화의 호황이 마냥 반갑게만 들리지 않는 것은 중소영화제작사와 영화인들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대기업 배급사와 투자자들만 살찌는 구조가 안타깝기도 하고 값싸고, 수동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향유 프로그램이 빈곤한 결과인듯 보이기 때문이라.

## 지역문화융성의 성패는 사회적자본과 시민사회 형성을 위한 창조인력 양성에 달려있어

현재 수준의 지역문화는 수도권의 해비급 체급에 맞춰 체형을 불리는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체질을 바꾸는데 목표를 두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 문화융성의 성패는 사회적 자본과 시민사회 형성을 강화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만큼 창조적 인력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라 할 것이다.

“사회적 자본”은 경제적인 것처럼 사회적으로 ‘투자’ 될 수 있는 것이며, 사회를 통합·유지-인간관계, 책임의식에 비롯되는 타인을 배려하는 행위들, 상호부조, 사회적 연대, 공동체화시키는 ‘접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회자본의 구축은 ‘시민사회’가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개 ‘사회적 자본’이라고 할 때는 자발적, 수평적, 공식적, 이차적 관계에 의존하는 조직을 말하는데 스포츠클럽, 문학동아리, 연극동아리, 교회모임 등과 같은 조직을 말하는데 이와 대비되는 예로서는 정당, 동창회, 종친회, 향우회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sup>4)</sup>

이런 사회투자의 측면에서 지역문화융성은 창조인력들이 활동하고 작업할 수 있는 다양한 창의적 공간(레지던스, 아틀리에, 예술공방 등)들을 만들어가는 것과 함께 기존 장르별 문화예술인단체 중심의 문화예술지원사업 중심에서 문화예술창작활동가, 문화예술산업기획자 중심의 지원활동으로 옮겨와야 한다. 이는 결국 전업문화기획자, 전업문화예술인의 인력 양성 없이 지역문화의 뿌리를 내리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둘째, 충남도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의 관점에서도 건설, 항만, 교통분야 중심에서 문화, 체육분야로 과감히 전환하여야 하고, 충남도내에서 활용가능한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주민자치센터, 근린공원 등의 공공부분 공간과 대학, 학교도서관 및 체육관, 교회 등 다양한 민간영역의 공간들과의 ‘문화적 연결망’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은 1920년대 말~1930년대 초반에 있었던 경제대공황의 시기에 노동진흥국(WPA)을 중심으로 다리, 공원 등 수천 개의 지역개발사업과 9천개 이상의 오락시설을 지원하면서 작가, 미술가, 교사, 배우, 음악가, 지역언론 등을 육성하는 정책을 폈고, 체육 분야에서도 미국은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254개의 골프장, 318개의 스키장, 805개의 수영장, 1,720개의 체육관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건설함으로써 경기부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 인프라를 만들었다. 독일은 1960년대부터 종합적인 체육시설 건립계획인 골든플랜을 수립하여 1975년까지 15년 동안 경기장 14,700개, 체육관 15,900개,

4) 하버드대 교수인 푸트넘(Robert D. Putnam)은 ‘사회적자본과 민주주의’(2000)에서 이탈리아의 경우 스포츠클럽이 노동조합, 정당, 교회조직들보다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5) 이응식(2008) ‘생활체육 정책의 현재 모습’ - 관주도 정책관점에서 - 논문중 6page 인용

실내수영장 3,000개, 어린이운동장 31,000개를 건립하여 경기부양을 하였다.<sup>5)</sup> 프랑스는 1950년대말 A. 말로가 문화부장관인 시절부터 자크 시락(Jacques Chirac)이 파리시장이었을 때 파리시의 경우 각 20개의 구에 콩세르바투와르(Conservatoire : 시립예술교육기관), 도서관, 아뜰리에 등을 통해서 동네들 총괄하는 일종의 문화적 연결망을 건설하면서 문화앞에서의 사회적 불평등과 지리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결국 지역차원에서는 문화공간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저비용으로 효율성 높은 시설을 새로 짓거나, 여러 공적, 사적 공간들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펴야 한다. 이는 기압계는 빈공장이나 농촌유희공간을 활용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시민들이 자체운영하는 일본 가나자와 시민예술촌이나 요코하마의 부두시설을 활용하여 작가 레지던시, 카페, 문화도서관, 각종 세미나 및 워크숍을 통해 요코하마 창조도시의 핵심거점으로 활용되는 BankpArt 사례, 전철하부공간과 집창촌지역을 예술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는 요코하마 코가네초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볼 일이다. 또한 파리, 비엔나 등 오래된 문화도시들에 있는 교회당처럼 중소도시, 농촌지역에 있는 훌륭한 종교시설들을 활용해 프로그램과 일부 장비지원을 통하여 클래식음악회, 연극공연 등 다양한 문화공연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산업,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종합적이고 융합적인 문화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의 내발적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나 평생교육분야, 문화예술위원회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이 훨씬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학교문화예술교육은 현행 단체위탁방식의 강사풀에 의존하는 것을 폐지하고, 독립된 창조인력들의 자격인증제를 시행하고, 단순강좌를 줄이고 마을만들기, 자생적마을축제, 다문화프로그램 등 시민주체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예술적 실천 프로그램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스토리텔링, 공예, 디자인, 관광, 스마트앱, 영상미디어 등 문화산업분야들의 콘텐츠 발굴과 제작에 적극 지원하면서 이들 창조인력들이 수도권 창조인력, 국제적 창조인력들과의 네트워크, 융합과제 수행을 위해 전시기원, 국제 레지던시 및 교환프로그램에 지원해서 그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충남지역내에 25개 대학 100여개 과 10,000여명의 학생들이 문화예술산업분야를 전공하고 있는데 이들 인력들과 마을과의 협력 연계프로젝트 발굴, 나아가 마을과 학교, 학생들이 함께하는 마을기업 혹은 협동조합 모델링화 사업 등은 매우 긴요해 보인다.